

2008년 7월 15일 메시지

아픈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며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부교역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목회로 떠나십시오. 지금 교회들 자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신들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뛰어들어야 합니다. 부교역자는 1년정도 하면 거의 됩니다. 목회는 혼자 서도 할 수 있으니까 밀어부쳐서 해보십시오. 부교역자들 신학도 했으면 지금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힘듭니다. 결국 한국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계속 옵니다.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체질에 맞는가도 살펴보십시오. 자기 체질대로 하는 것입니다.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체질에 맞는 것이 자기의 재능입니다. 그러니 목회를 원하면 교단에 신청을 하십시오.

해외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주 다녀줘야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교역자들은 전도만 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외를 다녀봐서 잘 압니다. 한국은 신앙을 먼저 넣지만 외국은 거꾸로 해야 합니다. 외국은 다른 것을 통해서 가까이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도 해주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공부를 자꾸 하는 것 보다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나 보십시오. 미술 공부 안 했는데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다보니 실전에 강해진 것입니다. 실전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춘제 회원으로 그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내 그림을 별로 안 쳐주지만 유럽쪽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나는 5초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립니다.

어제는 계속 새벽 두시까지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의 주권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책을 4권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세상이 뒤집어 질 것입니다. 월남전 책에도 다 나왔습니다.